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5, Vol. 29, No. 4, 63-83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구 재 선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서 은 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상대적 외적 가치(relative extrinsic value), 즉 내재적 가치(대인관계, 건강 등)에 비해 외재적 가치(돈, 외모, 타인의 인정 등)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행복(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 대학 신입생들은 미국 대학 신입생들 보다 외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더 높고, 내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더 낮았다(연구1). 또한 상대적 외적 가치는 동일 시점에 측정된 행복의 국가 차이(연구1)와 1년 후 행복의 개인차(연구2)를 설명했다. 끝으로 상대적 외적 가치와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사회적 지원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연구1과 연구2).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비교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행복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행복, 주관적 안녕감,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 비교, 문화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30).
연구에 도움을 주신 Oishi Shigehiro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행복 및 문화심리연구실 대학원생들, 그리고 University of Virginia 및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의 담당 대학원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서은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2123-2435, E-mail: esuh@yonsei.ac.kr

www.kci.go.kr

한국은 객관적 여건이나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서 행복 수준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이 북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Diener & Suh, 1999, 2000). 최근 갤럽 조사 발표에서도 한국의 행복순위는 세계 143개국 중에서 11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조선일보, 2015년 4월 25일자). 행복이 단지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성공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서은국, 2014;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Oishi, 2012; Oishi & Koo, 2008), 개인과 국가의 성장과 번영위해 한국인이 왜 불행한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와 Tay (2010)는 한국이 수입의 측면에서는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높은 물질주의를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일본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짐바브웨 사람들 보다 더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한다는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물질과 같은 외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더 많이 사회비교를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Suh(2007; Suh & Koo, 2008)는 객관적인 외적 준거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성이 행복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소속 욕구가 강하고 사회적 승인이 강조되기 때문에 내적, 주관적 경험보다 외적, 사회적 준거(예컨대, 학벌, 돈, 외모 등)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것이 행복감을 낮추는 집합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이나 외적 준거를 강조하는 문화적 특징이 국가 간의 행복 차이를 가져온다는 설명은 왜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행복하거나 불행한지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준다. 더욱이 이러한 설명은 문화와 행복에 대한 기존의 방대한 자료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 자료를 통한 직접적인 검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청소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외적 준거에 대한 상대적 강조가 두 문화권의 행복 수준 차이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상대적 외적 가치와 낮은 행복

개인이나 사회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루려고 하는가는 가치(value)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가치[1]는 추상적인 포괄적 목표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자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의하는 원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Schwartz & Sagiv, 1995).

가치는 그 내용에 따라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으로 구분된다(Grouzet et al., 2005; Kasser & Ryan, 1996).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는 인간의 선천적인 기본 욕구 충족과 관련된 가치를 말한다. 자기수용, 친화성, 공동체 감정, 신체적 건강 등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상을 제공한

1) 가치(value)와 유사한 개념에는 목표(goal), 개인적 추구(personal striving), 삶의 염원(life-aspiration)이 있다. 가치가 삶의 지침이 되는 원리(Schwartz & Sagiv, 1995)라면, 목표(goal)는 개인이 내면화한 바람직한 상태이며(Oishi, 2000), 개인적 추구(personal striving)나 삶의 염원(life-aspiration)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특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Emmons, 1986; Kasser & Ryan, 1993, 1996). 이들은 유사한 개념으로 흔히 일반성(generality)의 측면에서 구분된다. 가치가 보다 고차원적 목표라면 개인적 추구나 삶의 염원은 저차원적 목표로 개념화되며(Oishi, 2000), 목표는 가치의 특정한 형태(예컨대 교육에 가치를 둔다면, 대학 지원, 학점 받기 등의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것)로 여겨진다(Locke, 2002). 이들은 이론적 수준에서는 구분될지라도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Hellevik, 2003).

www.kci.go.kr

다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에 해당한다. 반면에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s)는 기본 심리 욕구의 직접적인 충족과 거리가 먼 외적인 요소들(예를 들면 경제적 성공, 매력적 외모, 사회적 인정, 명성 등)의 획득을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이러한 외적 요소들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을 주기보다는 개인이 보상이나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학자들은 모든 가치가 행복과 동일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이 더 향상된다고 보고해 왔다(Kasser, 2000, 2002; 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 외재적 가치도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데 어느 정도 도구적일 수 있지만, 내재적 가치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할 때 행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과 성인(Kasser & Ryan, 1993, 1996) 뿐 아니라 아동(노현종 & 손원숙, 2014), 청소년(Lekes, Gingras, Philippe, Koestner, & Fang, 2010), 노인(Sheldon & Kasser, 2001)과 같은 다른 연령집단에서도 일반화되었고, 독일(Schmuck, Kasser, & Ryan, 2000), 러시아(Ryan, Chirkov, Little, Sheldon, Timoshina, & Deci, 1999), 스페인(Romero, Gomez-Fraguela, & Villar, 2012), 한국(Kim, Kasser, & Lee, 2003), 중국(Lekes et al., 2010)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추구하는 가치의 내용은 성격(Chan & Joseph, 2000; Romero et al., 2012; Visser & Pozzebon, 2013)이나 가치 추구의 이유(Sheldon, Ryan, Deci, & Kasser, 2004)를 통제해도 여전히 행복을 예측했으며, 이러한 관계는 개인이나 소속 국가의 경제수준과도 무관했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Martos, & Kopp, 2012).

따라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내용에 따라 행복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현상으로 보인다. 내재적 가치(자기 수용, 친화성, 공동체 감정, 건강 등)에 비해 외재적 가치(돈, 외모, 사회적 인정, 명성 등)를 중요시할 때 행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이다. 물질(Dittmar et al, 2014; Hellevik, 2003; 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Kasser et al., 2014; Nickerson, Schwarz, Diener, & Kahneman, 2003; Strivastava, Locke, & Bortol, 2001)이나 외모(박정현, 서은국, 2005)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행복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외재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행복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의 개인차 뿐 아니라 문화권에 따른 행복 수준의 차이 또한 그 문화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낮은 행복 수준이 내재적 가치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경향성, 즉 상대적 외적 가치(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Sheldon, Gunz, Nichols, & Ferguson, 2010)와 관련이 있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왜 상대적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행한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내재적 가치가 기본 심리적 욕구를 더 충족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설명한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Ryan et al., 1996).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유기체의 통합(integration) 과정을 돕는 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존재의 성장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자기결정이론에서 특히 강조하는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욕구이다. 내재적 가치의 추구와 달성은 이러한 욕구들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반면에,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 욕구 충족과 관련이 없거나 욕구 충족에 오히려 부정적인 활동에 개입하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게 만든다

www.kci.go.kr

는 것이 자기결정이론의 설명이다.

그러나 심리적 욕구 충족 이외에 내-외재적 가치와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변인들, 특히 경험과 행동 변인들을 찾으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치는 경험과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 가치에 일치하는 경험과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Feather, 1995; Kasser, 2002; Locke, 2002; Rohan, 2000; Sagiv & Schwartz, 1995). 따라서 내-외재적 가치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행동과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행복 수준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 외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이나 행동으로 인해 행복 수준이 저하될 수 있는지 또한 검토했다.

선행연구들은 내재적 가치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에 몰입된 사람들이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경험과 행동을 한다고 보고해왔다. 물질적 풍요와 같은 외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애인과 같은 친밀한 대상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Myers, 1999), 관계의 질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했다(Kasser & Ryan, 2001; Solberg, Diener, & Robinson, 2004).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협력하기보다 경쟁하고(Sheldon & McGregor, 2000; Sheldon, Sheldon, & Osbaldiston, 2000), 친밀한 관계에 대한 염려와 돌봄, 공감, 자발적 도움 수준이 더 낮았다(Kasser & Ryan, 2001; Sheldon & Kasser, 1995).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대인관계적 특징은 이들이 사회적 지원의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대인관계의 질이 낮고, 도움, 염려, 공감 수준이 낮다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는 모두 심리적 안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이지연, 2006).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타인에게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은 지원 수혜자의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생활만족을 향상시켰으며(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Cohen, & Wills, 1985),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도움 제공자는 긍정적 감정이 증가했다(Cialdini, Darby, & Vincent, 1973). 따라서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 정도가 모두 낮을 것이며 그로 인해 행복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사회비교이다. 내재적 가치(자기수용, 대인관계, 건강 등)를 평가할 때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하기 쉽지만, 돈, 외모와 같은 외재적 가치는 주관적 경험 자체 보다 외적 사회비교 정보에 의존하여 평가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Fujita(2008)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회비교를 하는 영역은 신체적 매력이나 학업성적과 같은 외적 속성이었고, 가장 사회비교를 하지 않는 영역은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적 속성이었다. 또한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주된 동기가 사회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것(예컨대 이웃보다 더 좋은 집과 차를 갖는 것)이며(Strivastava et al., 2001) 외재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우수할 때 더 동기화된다는 연구 결과(Lee, Mclnerney, Liem, & Ortiga, 2010)도 상대적 외적 가치 추구가 높은 사회비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사회비교 또한 행복과 관련된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보다 더 빈번하게 사회비교를 했으며 사회비교 정보에 의해서 정서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Lyubomirsky & Ross, 1997; Lyubomirsky, Tucker, & Kasri, 2001). 또한 사회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특히 수치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jita, 2008). 이러한 맥락에서 White, Janger, Yariv와 Welch(2006)는 사회비교가 비록 일시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약한

www.kci.go.kr

사회적 지원 뿐 아니라 높은 사회비교 또한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의 행복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할 때, 한국인들은 집합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주의 국가의 구성원들보다 외재적 가치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 즉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으며, 그로인해 낮은 행복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다면 사회비교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원을 적게 주고받을 것이며, 이것이 한국인의 낮은 행복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두 개의 경험적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1에서는 집단주의 국가인 한국과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비교, 사회적 지원이 행복의 국가 차이를 설명하는지 검토했다. 연구2에서는 종단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 신입생 시기의 상대적 외적 가치가 사회비교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1년 후 행복에 기여하는지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치관, 즉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바가 개인과 국가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1

왜 국가 간 행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두 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했다(그림 1). 첫 번째 연구모형(모형A)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 비교가 두 국가(한국과 미국) 간의 행복 차이를 설명하는 모델이고, 두 번째 연구모형(모형B)는 상대적 외적 가치에서 사회비교 및 사회적 지원으로의 두 개 경로를 추가한 모델이다. 위계적 모델 비교 절차에 따라 최종모형을 선정한 후, 모수치 추정을 통해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비교, 사회적 지원이 두 국가 간 행복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했다.

방 법

연구 대상

집단주의 국가인 한국과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두 국가의 대학교 신입생 699명(한국 299명, 미국 400명)에게 설문을 실시했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총 68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한국 대학생 294명(남자 149명, 여자 145명), 미국 대학생 391명(남자 141명, 여자 243명, 성별무응답 7명)이었다.

두 국가 분석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을 검토했을 때, 연령평균은 한국인 18.77세(SD=.90), 미국인 19.13세(SD=2.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3.851, *ns.*). 종교의 경우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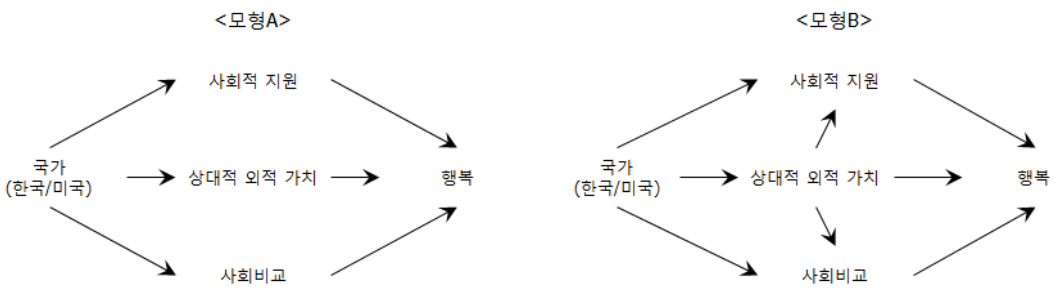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www.kci.go.kr

국가 모두 무교가 가장 많았고(한국: 177명, 60.4%, 미국: 151명, 39.1%), 그 다음으로 기독교(한국: 63명, 21.5%, 미국: 88명, 22.8%), 천주교(한국: 31명, 10.6%, 미국: 77명, 19.9%), 기타(한국: 22명, 7.5%, 미국: 70명, 18.1%)의 순이었다. 부모 학력 또한 두 국가 모두 90% 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부학력: 한국 95.6%, 미국 97.4%, 모학력: 한국 94.5%, 미국 97.4%). 그러나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1=저소득, 10=고소득)은 한국보다 미국대학생들이 더 높았기에(한국 *Mean*=5.44, *SD*=1.73, 미국 *Mean*=6.21, *SD*=2.11, *F*=25.81 $p<.001$), 이를 통제한 분석을 실시했다.

측정 도구

응답자의 행복과 가치관,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모든 문항은 먼저 한국어로 작성한 후 영문으로 번역했으며, 이중 언어 사용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영문과 한국어 설문지를 완성했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하위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Diener, 1984)로 측정했다.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했고, 본 연구에서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49(한국 α=.812, 미국 α=.858)였다. 정서적 행복은 Diener 등(2009)의 SPANE 척도(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지난 한달 동안 정서 경험 빈도를 묻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 6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9(한국 α=.882, 미국 α=.861)였고, 부정적 정서 6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95(한국 α=.724, 미국 α=.843)였다. 행복(주관적 안녕감) 점수는 Sheldon 등(2010)에 따라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에서 부정적 정서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의 합을 뺀 값으로 산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점수는 주관적 안녕감의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측면을 반영하며, 이를 행복의 지표로 사용했다.

가치관은 선행연구자들(Grouzet et al., 2005; Kasser & Ryan, 1996)이 내-외재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8가지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했다(1=전혀 중요하지 않다, 7=매우 중요하다). 각 항목의 내용은 표 1에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가치 4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61(한국 α=.646, 미국 α=.673)이었고, 외재적 가치 4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70(한국 α=.647, 미국 α=.664)이었다. 상대적 외적 가치(relative extrinsic value) 점수는 Sheldon 등(2010)에 따라 외재적 가치 문항 평균에서 내재적 가치 문항 평균을 뺀 차이 점수로 산출했다.

사회적 지원은 가족이나 친구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로 측정했다. 전체 문항은 지원 제공을 측정하는 6문항과 지원의 수혜를 측정하는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했다. 지원 제공의 경우 김의철과 박영신(1999)에 따라 가족과 친구 각각에 대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도움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했고(1=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7=많은 도움을 준다), 지원의 수혜는 동일한 대상(가족, 친구)에게 동일한 유형의 도움(정서, 정보, 물질적 도움)을 받는 정도를 응답하게 했다(1=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7=많은 도움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 총 12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89(한국 α=.764, 미국 α=.814)였다.

사회비교는 사회비교의 빈도와 영향을 측정하는 2문항으로 구성했다. 사회비교 빈도는 Gibbons과 Buunk(1999)의 사회비교지향척도(INCOM)의 문항(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을 사용했고, 사회비교의 영향은 Triandis와 Gelfand(1998)의 척도 중에서 비교의 영향을

www.kci.go.kr

반영하는 문항(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때 나는 긴장하고 자극을 받는다)으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두 문항 간 상관계수는 r=.331, p<.01 (한국 r=.368, p<.01, 미국 r=.288, p<.01)이었다.

결과 및 논의

가치의 요인구조

가치는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Ryan & Deci, 2002), 제시된 가치들이 두 문화에서 동일한 요인 구조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멕스 방식으로 직교회전한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고유가 1이상에서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1). 또한 두 문화에서 동일하게 외재적 가치를 측정하는 4문항은 요인1에 부하되었고, 내재적 가치의 4문항은 요인2에 부하되었다. 두 개 요인의 전체 설명 변량은 한국 50.35%, 미국 51.14%였다.

다음으로 두 국가에서 척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위계적 모델 비교 검증 절차에 따라 먼저 무제약 모형(unconstrained model)의 적합도를 검토했을 때, CMIN=89.31, df=38 p<.001 NC=2.35, CFI =.94, TLI=.92 RMSEA=.044로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하여 집단간 요인구조가 동일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단간 요인부하량까지 같은 것으로 제약한 모형(measurement weights model)과 무제약 모형의 부합도 차이를 검토했을 때, CMIN=5.93, p=.432로 부합도가 5.93만큼 나빠졌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 간에는 요인 구조 뿐 아니라 요인부하량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간 공분산까지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모델(structural covariance model)의 경우 CMIN= 12.265, p=.007로 부합도가 유의하게 나빠졌다. 따라서 가치관 척도는 두 국가에서 형태의 동일성과 요인계수의 동일성이 확인되었으나 집단간 분산, 공분산까지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평균 차이

측정변인들의 국가 간 평균차이를 검토했다. 두 국가 간에는 주관적인 경제 인식에 차이가

표 1. 가치관의 요인구조

	한국(N=294)		미국(N=391)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타인의 인정(others' approval)	**.64**	.19	**.71**	.10
체면(maintaining social "face")	**.70**	.11	**.75**	.05
외모(physical appearance)	**.72**	-.03	**.77**	.03
돈(money)	**.68**	.07	**.58**	.00
가족과의 관계(relationship with family)	.11	**.84**	.08	**.83**
친구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friends)	.37	**.65**	.20	**.75**
도덕성(morality)	.07	**.55**	-.04	**.57**
건강(health)	-.04	**.70**	-.02	**.67**
고유가	2.04	1.99	2.05	2.04
설명변량(%)	25.50	24.85	25.59	25.56

www.kci.go.kr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변량 분석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한국 대학 신입생은 미국 대학 신입생보다 상대적 외적 가치와 사회비교가 더 높고, 사회적 지원과 주관적 안녕감이 더 낮았다. 가치관을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내재적 가치가 경계선 수준에서 더 낮았고, 외재적 가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

다음으로 측정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 및 주관적 경제인식을 통제한 부분상관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상대적 외적 가치와 사회비교가 높고, 사회적 지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낮았다. 또한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비교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사회비교와 사회적 지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

표 2. 국가별 평균과 표준편차

	한국		미국		*F*
	M	*SD*	*M*	*SD*	
외재적 가치(a)	**5.34**	.81	4.82	.97	61.329***
내재적 가치(b)	6.14	.69	**6.26**	.71	3.475†
상대적 외적가치(a-b)	**-.80**	.90	-1.44	1.11	66.544***
사회 비교	**5.41**	1.02	4.65	1.12	83.093***
사회적 지원	4.53	.76	**4.81**	.84	11.649**
주관적 안녕감	6.62	2.22	**7.25**	2.36	6.114*

주. *F*는 주관적 가정경제 지각을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1, * p<.05, † p<.10

표 3. 측정변인의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상대적 외적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 비교	주관적 안녕감
상대적 외적가치	1.00	-.26**(-.24**)	.34**(.33**)	-.28**(-.27**)
사회적 지원		1.00	-.04(-.10)	.40**(.37**)
사회비교			1.00	-.18**(-.17**)
사례수	685	685	685	685
평균	-1.17	4.69	4.98	6.98
표준편차	1.07	.82	1.14	2.32
왜도(skewness)	-.31	-.29	-.29	-.34
첨도(kurtosis)	.34	.64	-.29	-.04

주. 괄호 안은 주관적 가정경제지각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임.
** p<.01

www.kci.go.kr

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경제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통제했을 때나(표 3), 두 국가를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에도(표 4)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을 구분한 분석의 경우, 상대적 외적 가치와 사회적 지원은 주관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 변인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비교는 낮은 삶의 만족 및 높은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가 유의했다. 비록 두 국가 간에 주관적 경제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통제한 모든 분석에서 결과가 동일했고,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들 간에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과 주관적 경제인식을 포함하지 않고 모형검증을 실시했다.

모형 검증

모형 검증에 앞서 먼저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왜도(skewness<3)와 첨도(kurtosis<10)가 모두 정규분포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문수백, 2009; Kline, 2011). 이에 두 개의 위계적 연구모델(그림 1)에 대한 통계 모델을 설정하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부합도를 추정했다.

두 경쟁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비교했을 때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델A보다 모델B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문수백, 2009). 이러한 모델 간 부합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_D = 85.373, p<.001로 두 모형의 카이자승값(CMIN)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모델B는 모델A보다 경로가 추가되어 간명성을 잃었지만 부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므로 모델B를 최종 모델로 채택했다.

선택모델(모델B)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표 6와 그림 2에 제시했다. 표 6과 같이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선택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효과의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상대적 외적 가치(β=-.295, p<.001)와 사회비교(β=-.254, p<.001)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낮았다(β=.099, p<

표 4. 국가별 단순상관관계

	상대적 외적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 비교	주관적 안녕감
상대적 외적가치	-	-.20**	.28**	-.26**
사회적 지원	-.26**	-	.00	.41**
사회비교	.26**	.04	-	-.12*
주관적 안녕감	-.26**	.35**	-.17**	-

주. 대각선 아래는 한국(N=294), 대각선 위는 미국(N=391) 결과임.
** p<.01, * p<.05

표 5. 경쟁모형의 부합도 지수

	NPAR	DF	CMIN	NC	CFI	TLI	RMSEA
모델A	11	4	90.04 (p<.001)	22.51	.79	.46	.177
모델B	13	2	4.66 (p=.097)	2.33	.99	.97	.044
기준				2.0~5.0	>.90	>.90	<.50

www.kci.go.kr

표 6. 직·간접 효과 분해표

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국가(한국=0, 미국=1)	→	상대적 외적 가치	-.295	-.295***	
국가(한국=0, 미국=1)	→	사회비교	-.332	-.254***	-.078***
국가(한국=0, 미국=1)	→	사회적 지원	.166	.099*	.067***
국가(한국=0, 미국=1)	→	주관적 안녕감	.142		.142***
상대적 외적 가치	→	사회비교	.266	.266***	
상대적 외적 가치	→	사회적 지원	-.226	-.226***	
상대적 외적 가치	→	주관적 안녕감	-.264	-.153***	-.111***
사회비교	→	주관적 안녕감	-.112	-.112**	
사회적 지원	→	주관적 안녕감	.359	.359***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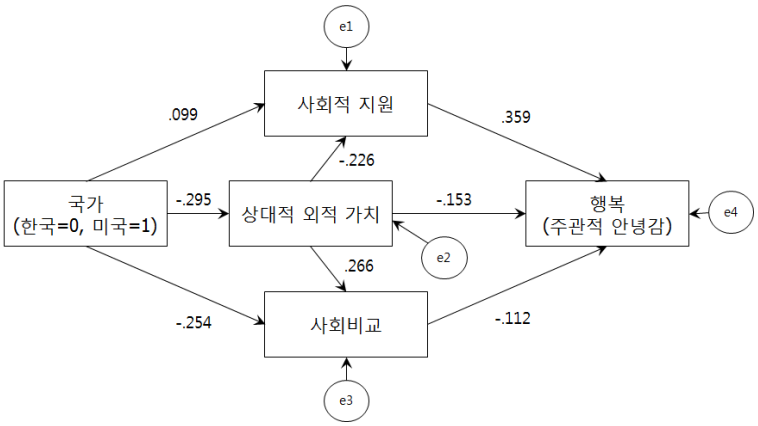

그림 2. 선택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

.05). 또한 높은 상대적 외적 가치는 높은 사회비교(β=.266, p<.001)와 낮은 사회적 지원(β=-.226, p<.001)을 설명했다. 끝으로 낮은 상대적 외적 가치(β=-.153, p<.001)와 사회비교(β=-.112, p<.01),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원(β=.359, p<.001)은 높은 행복에 기여했다. 이러한 직접효과 외에도 표 6과 같이 모델에서 가정한 모든 간접효과가 유의했다(bootstrapping z=5,000, 95%신뢰구간에서 모든 간접효과 유의도 p<.001).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것이 한국 학생들의 높은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대학 신입생들은 미국 대학신입생들보다 그 자체로 만족을 주는 내재적 가치에 비해 돈, 외모,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높은 상대적 외적 가치는 직접적으로 행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사회적 지원의 교환을 막음으로써 행복에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본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외재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국가 간의 행복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선행연구자들(Diener 등, 2010; Suh, 2007; Suh & Koo, 2008)의 견해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지지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상대적 외적 가치와 행복의 부적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사회비교의 간접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왜 상대적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즉 내재적 가치에 비해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할 때 어떤 경험과 행동으로 인해 행복이 저해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그러나 모든 변인들을 동일 시점에 측정함으로써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대인관계가 더 긍정적이고(Lyubomirsky et al., 2005), 사회비교 정보에 덜 민감하며(Lyubomirsky. & Ross, 1997; Lyubomirsky et al., 2001), 물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약할 가능성(Sirgy, 1998; Solberg et al., 2004)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행복이 상대적 외적가치나 사회비교, 사회적 지원의 결과라기보다 선행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구2에서는 종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상대적 외적 가치와 사회비교,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2

연구1에서 검증된 모형의 방향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연구2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치관(상대적 외적 가치)과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가 미래 행복을 설명하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서 연구1의 모형 중에서 선행변인이 확실한 국가(문화) 변인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2에서는 연구모형에 국가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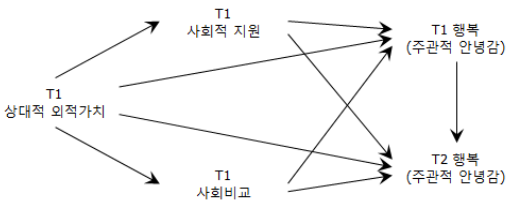

그림 3. 종단자료 연구모델

했다. 연구1에 참가했던 한국 대학 신입생들이 1년이 지나 2학년이 되었을 때 행복(주관적 안녕감)을 다시 측정하고, 부합도과 모수치 추정을 통해 신입생 시기의 상대적 외적가치, 사회비교, 사회적 지원이 2학년이 되었을 때의 행복에 기여하는지 검증했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1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후에 2차 설문을 실시했다. 2차 연구에 다시 참가한 인원은 총 252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결측치가 없는 248명(남자 114명, 여자 13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측정 도구

연구1과 동일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행복을 재측정했다. 연구2에서 재측정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삶의 만족의 경우 .860이었고,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각각 .916과 .782였다. 응답자의 행복 점수는 연구1과 동일하게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점수의 합에서 부정적 정서 점수를 뺀 차이 값으로 산출했다.

www.kci.go.kr

결과 및 논의

먼저 연구1에서 측정된 변인들과 연구2에서 측정된 행복의 상관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1년 전에 측정된 상대적 외적 가치(r=-.14, p<.05) 및 사회비교(r=-.20, p<.01)와 부적 관계가 있었고, 1년 전 사회적 지원(r=.13, p<.05) 및 주관적 안녕감(r=.45, p<.01)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자료분포의 정규성을 검토했을 때,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하여 모형 검증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문수백, 2009; Kline, 2011). 이에 최대우도추정 절차에 따라 연구모형의 모수치와 부합도를 추정했을 때, 1차시기에 측정된 상대적 외적가치 및 사회적 지원에서 2차시기에 측정된 주관적 안녕감으로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에 대해 부합도와 모수치를 다시 추정했다.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했을 때, 표 8과 같이 두 모형 모두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카이자승 차이 검증을 실시했을 때에도 χ^2_D = .022, p=.989로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두 모형간 부합도에 차이가 없으면 더 간명한 모델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문수백, 2009) 수정모형을 최종 모델로 채택했다.

채택된 수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는 그림 4 및 표 9와 같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T1 상대적 외적 가치와 T1사회적 지원에서 T2주관적 안녕감으로의 경로계수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검증 결과를 보면,

표 7. 변인의 상관과 기술통계치

	T1 상대적 외적가치	T1 사회적 지원	T1 사회 비교	T1 주관적 안녕감	T2 주관적 안녕감
T1 상대적 외적 가치	1.00	-.26**	.26**	-.25**	-.14*
T1 사회적 지원		1.00	.01	.33**	.13*
T1 사회 비교			1.00	-.21**	-.20**
T1 주관적 안녕감				1.00	.45**
사례수	248	248	248	248	248
평균	-.83	4.53	5.40	6.68	6.20
표준편차	.89	.78	1.03	2.27	2.56
왜도(skewness)	.01	-.21	-.61	-.22	-.31
첨도(kurtosis)	.60	.45	.21	-.03	.05

** p<.01, * p<.05

표 8.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PAR	DF	CMIN	NC	CFI	TLI	RMSEA
초기모델	14	1	1.573 *n.s.*	1.573	.986	.956	.048
수정모델	12	3	1.595 *n.s.*	.532	1.000	1.036	.000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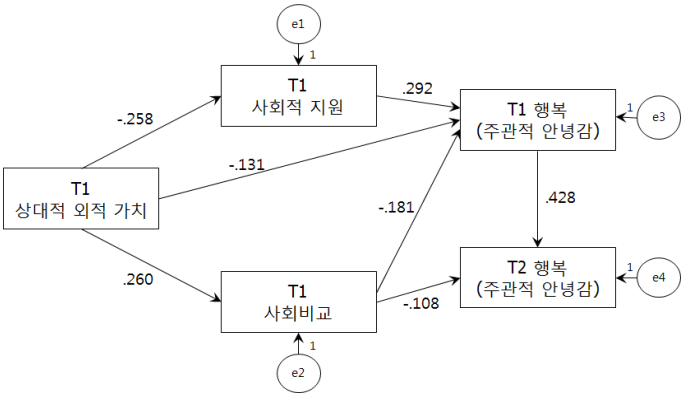

그림 4. 수정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표 9. 수정모형의 직 · 간접효과 분해표

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T1 상대적 외적 가치	→	T1 사회적 지원	-.258***	-.258***	
T1 상대적 외적 가치	→	T1 사회비교	.260***	.260***	
T1 상대적 외적 가치	→	T1 주관적 안녕감	-.253***	-.131*	-.122***
T1 상대적 외적 가치	→	T2 주관적 안녕감	-.137***		-.137***
T1 사회적 지원	→	T1 주관적 안녕감	.292***	.292***	
T1 사회적 지원	→	T2 주관적 안녕감	.125***		.125***
T1 사회비교	→	T1 주관적 안녕감	-.181**	-.181**	
T1 사회비교	→	T2 주관적 안녕감	-.185**	-.108†	-.077**
T1 주관적 안녕감	→	T2 주관적 안녕감	.428***	.428***	

*** p<.01, *** p<.01, * p<.05, † p<.10

상대적 외적 가치에서 동일시기에 측정된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 주관적 안녕감으로의 직접효과가 유의했고, 사회비교는 동일시기 행복을 통제했을 때 1년 후 주관적 안녕감에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1년 전 상대적 외적가치와 사회적 지원은 1년 후 행복에 직접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에 1차시기 상대적 외적 가치에서 2차시기 주관적 안녕감으로의 간접효과가 -.137로 유의했다(bootstrapping z=5,000, 95%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유의도 p<.001). 따라서 상대적 외적 가치는 높은 사회비교와 낮은 사회적 지원, 낮은 행복감을 통해 1년 후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 및 사회비교가 동일시기 행복을 통해 1년 후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표 9).

이러한 결과는 대학 신입생 시기의 가치관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직접효과는 사라졌으나, 신입생 때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이 높은 학생은 남들과의 비교에 더 민감하고 친밀한 타

www.kci.go.kr

인과 정서, 정보, 물질적 지원을 적게 주고받음으로써 동일시기에 낮은 행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2학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행복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가는 현재의 행복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원과 사회비교를 통해 미래 행복을 예측하는 한 가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는 초기 행복을 통제했을 때에도 1년 후 행복에 경계선 수준의 직접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상대적 외적 가치로 인해 증가된 사회비교가 1년 동안의 행복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행복을 통제했을 때 1년 후 행복에 대한 상대적 외적가치나 사회비교의 직접효과는 사라졌기에, 이러한 요소들이 행복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본연구의 측정간격이 1년으로 비교적 짧아서 상대적 외적 가치나 사회적 지원이 행복 변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선행연구자들(Lyubomirsky et al., 2005; Lyubomirsky & Ross, 1997)의 주장대로 행복이 대인관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장기종단연구나 반대방향의 영향력을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논의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문화 혹은 국가별 행복 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복순위는 꾸준히 낮았다(Diener & Suh, 1999, 2000). Suh와 Koo(2008)는 이제 그동안의 누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왜' 특정 문화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행복하거나 불행한지 밝히려는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왜 한국인들이 다른 문화권, 특히 개인주의 문화권의 구성원보다 행복하지 못한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낮은 행복감이 선행연구자들(Diener 등, 2010; Suh, 2007; Suh & Koo, 2008)의 주장과 같이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왜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불행한지, 특히 어떠한 경험과 행동이 이들의 행복을 저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복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가 부적응적이고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Kasser, 2000, 2002; Kasser, Cohn, Kanner, & Ryan, 2007).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에서의 취약성과 사회비교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이들의 낮은 행복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모형검증을 통해 검토했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 같이(Diener 등, 2010), 한국 대학 신입생들은 미국 대학 신입생들보다 돈, 외모, 타인의 인정, 체면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대인관계, 도덕성, 건강과 같은 내재적 가치에 더 소홀했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높은 상대적 외적 가치는 동일 시점에 측정된 행복의 국가 차이(연구1)와 1년 후 행복의 개인차(연구2)를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의 국가차이가 외적 준거를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자들(Diener 등, 2010; Suh, 2007; Suh & Koo, 2008)의 주장을 지지하며, 상대적 외적 가치와 낮은 행복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Kasser & Ryan, 1993; 1996; Ryan et al., 1996).

가치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개인과 국가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재적 가치를 추구

www.kci.go.kr

하는 사람들은 외재적 목표(인기, 돈)가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재 외재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복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에 내재적 목표(친밀한 관계, 자원봉사)의 달성은 내-외재적 가치 추구자 모두의 행복을 향상시켰다(Niemiec, Ryan, & Deci, 2009; Sheldon et al.,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과 청소년들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행복의 조건으로 외적 조건(학벌, 직업,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적 조건(가족의 화목, 마음의 평화 등)을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종한, 박은아, 2010). 이는 행복의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화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보다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상대적 외적 가치는 높은 사회비교 및 낮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내-외재적 가치 지향에 따라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주장하며(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Ryan et al., 1996), Kasser(2002)는 이러한 주장이 주로 자율성과 관계성의 욕구에 대해서 지지되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낮다는 것, 다시 말해서 친밀한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낮다는 것은 관계성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비교에 대한 민감성은 스스로 동기화되기보다 외적인 기준에 의해 동기화되는 통제지향(control orientation)을 반영하며(Sheldon et al., 2004), 이는 자율성 욕구의 결핍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은 한국 대학생들이 높은 사회비교와 낮은 사회적 지원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반영하는 내재적 가치 지향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외재적 가치 지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관계성과 자율성의 심리적 욕구 충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심리적 안녕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을 고려할 때, 한국 청소년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촉진하고 비교의 강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보이는 높은 상대적 외적 가치가 문화적 자아개념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Suh(2007; Suh & Koo, 2008)는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유대와 소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관계지향적이고 맥락에 민감한 자아(highly context-sensitive self)가 발달했으며, 그로인해 행복을 저해하는 여러 심리적 속성(예컨대 외적 준거에 대한 강조나 사회 비교 민감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한국과 개인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 청소년을 비교했으나, 두 국가 간에는 자아개념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차이가 혼재되어 있다. 심리적 불안이 외재적 가치를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Sheldon & Kasser, 2008), 대학생들의 불안을 촉진하는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함께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아개념(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에 대한 문화적 영향과 다른 사회적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사회 전반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초, 중학생보다 외적 조건을 중요시하고, 사회비교를 하는 경향이 더 높다(이종한, 박은아, 2010). 특히 대학 신입생 시기는 치열한 점수 경쟁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상태이다. Sheldon(2005)에 따르면, 대학 4년동안

www.kci.go.kr

가치는 내재적 가치가 증가하고 외재적 가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 신입생들이 미국 대학 신입생보다 상대적 외적 가치와 사회비교가 높았던 것은 특정 연령집단에 제한된 결과일 수 있다. 대학 신입생 시기의 경제적 성공 가치가 19년 후 낮은 삶의 만족을 예측한다는 점에서(Nickerson et al., 2003) 대학 신입생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겠으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영향력의 방향성 문제이다. 본 연구는 기존 횡단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단적 방법을 활용하여 1년 후의 행복을 측정했다(연구2). 그러나 다른 변인들 간의 영향력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또한 본 연구가 단일방향적 영향만을 가정했던 것과 달리, 가치관, 사회비교, 사회적 지원, 행복은 서로 양방향적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Lyubomirsky, 2001; Solberg et al., 2004; White et al., 2006).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장기종단자료를 활용한 자기회귀모형분석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상대적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경험과 행동(사회비교와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낮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상향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은 성격과 같은 안정적인 심리적 속성의 영향 또한 받는다(Diener, 1984). 특히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의 주된 성격 특징으로 알려진 신경증적 경향성은 높은 외재적 가치(Romero et al., 2012) 및 사회비교(Fujita, 2008)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신경증의 영향을 분리했을 때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치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가치는 행복의 국가 차이나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가장 중요한 요소도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추구하는 가치가 현재 뿐 아니라 미래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명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노현종,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 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355-375.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9-31.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파주: 21세기북스.

이종한, 박은아 (2010).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중・고・대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4), 423-445.

이지연 (2006). 사회적 지원이 개인 안녕과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 55-75.

조선일보 (2015, 4, 25). 어떤 기준으로 조사해도 한국인 행복순위는 하위권.

Chan, R., & Joseph, S. (2000). Dimensions of personality, domains of aspi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www.kci.go.kr

28, 347-354.

Cialdini, R. B., Darby, B. L., & Vincent, J. E. (1973). Transgression and altruism: A case for hedon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502-516.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Diener, E., & Suh, E. M. (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434-450). NY: Russell Sage Foundation.

Diener, E., & Suh, E. M.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MIT Press.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 1-23.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 Biswas-Diener, R.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247-266.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 879-924.

Emmons, R. A. (198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58-1068.

Feather, N. T. (1995). Values, valences, and choice: The influence of values on the perceived attractiveness and choice of altern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35-1151.

Fujita, F. (2008). The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 and its relation to subjective well-being.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239-257). NY: Guilford Press.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The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Grouzet, F. M. E.,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 Ryan, R. M., Saunders, S., Schmuck, P.,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00-816.

Hellevik, O. (2003). Economy, values and happiness in Norwa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 243-283.

Kasser, T. (2000). Two versions of the American dream: Which goals and values make for a high quality. Ed Diener & D. R. Rahtz (Eds.),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 (pp. 3-12). Kluwer Academic Publishers.

Kasser, T. (2002). Sketches for a self-determination theory of value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in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123-140).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Kasser, T., Cohn, S., Kanner, A. D., & Ryan, R. M. (2007). Some costs of American corporate capitalism: A psychological exploration of value and goal conflicts. *Psychological Inquiry, 18,* 1-22.

Kasser, T., Rosenblum, K. L., Sameroff, A. J., Deci,

www.kci.go.kr

E. L., Niemiec, C. P., Ryan, R. M., Arnadottir, O., Bond, R., Dittmar, H., Dungan, N., & Kawks, S.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 1-22.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10-422.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80-287.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 116-131). Seattle, WA: Hogrefe.

Kasser, T., Ryan, R. M., Couchman, C. E., & Sheldon, K. M. (2004). Materialistic value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In T. Kasser & A.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11-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im, Y., Kasser, T., & Lee, H. (2003). Self-concept,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3*, 277-290.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Guilford Press.

Lee, J. Q., Mclnerney, D. M., Liem, G. A. D., & Ortiga, Y. P.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goal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 264-279.

Lekes, N., Gingras, I., Philippe, F. L., Koestner, R., & Fang, J. (2010). Parental autonomy-support, intrinsic life goals,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China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858-869.

Locke, E. A. (2002). Setting goals for life and happines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99-312). NY: Oxford University Press.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6,* 239-249.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1157.

Lyubomirsky, S., Tucker, K. L., & Kasri, F. (2001). Responses to hedonically conflicting social comparisons: Comparing happy and unhappy peopl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511-535.

Martos, T. & Kopp, M. S. (2012). Life Goals and Well-Being: Does Financial Status matter? Evidence from a representative Hungarian sam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5*, 561-568.

Myers, D. G. (1999). Close relationships and quality of life.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374-391). NY: Russell Sage Foundation.

Nickerson, C., Schwarz, N., Diener, E., & Kahneman, D. (2003). Zeroing in on the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A closer look at

www.kci.go.k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goal for financial success. *Psychological Science, 14,* 531-536.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L. (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291-306.

Oishi, S. (2000). Goals as cornerstones of subjective well-being: Linking individuals and cultures. In E. Diener & E.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87-112). Cambridge, MA: MIT Press.

Oishi, S. (2012). *The psychological wealth of nations: Do happy people make a happy society?* Hoboken, NJ: Wiley-Blackwell.

Oishi, S., & Koo, M. (2008). Two new questions about happiness.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 290-306). NY: The Guilford Press.

Rohan, M. J. (2000). A rose by any name? The values constru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 255-277.

Romero, E., Gomez-Fraguela, J. A., & Villar, P. (2012). Life aspirations,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Spanish samp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 45-55

Ryan, R. M., Chirkov, V. .I., Little, T. D., Sheldon, K. M., Timoshina, E., & Deci, E. L. (1999). The American dream in Russia: Extrinsic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two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509-1524.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in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Ryan, R. M., Sheldon, K. M., Kasser, T., & Deci, E. L. (1996). All goals are not created equal: An organismic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oals and their regulation.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pp. 7-26). NY: Guilford.

Sagiv, L., & Schwartz, S. H. (1995). Value priorities and readiness for out-group social conta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37-448.

Schmuck, P., Kasser, T., & Ryan, R. M.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Their structure and relationship to well-being in German and U. S. college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225-241.

Schwartz, S. H. & Sagiv, L. (1995). Identifying culture-specific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92-116.

Sheldon, K. M. (2005). Positive value change during colle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 209-223.

Sheldon, K. M., Gunz, A., Nichols, C. P., & Ferguson, Y. (2010).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affective forecasting: Overestimating the rewards, underestimating the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78,* 149-178.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Sheldon, K. M., & Kasser, T. (2001). Getting older, getting better? Personal strivings and psychological maturity across the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91-501.

Sheldon, K. M., & Kasser, T. (2008). Psychological threat and extrinsic goal striving. *Motivation and*

www.kci.go.kr

Emotion, 32, 37-45.

Sheldon, K. M., & McGregor, H. (2000).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Journal of Personality, 68*, 383-411.

Sheldon, K. M., Ryan, R. M., Deci, E. L., & Kasser, T. (2004). The independent effects of goal contents and motives on well-being: It's both what you pursue and why you pursue 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474-486.

Sheldon, K. M., Sheldon, M. S., & Osbaldiston, R. (2000). Prosocial values and group-assortation within an N-person prisoner's dilemma. *Human Nature, 11,* 387-404.

Sirgy, M. J. (1998). Materialism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 227-260.

Solberg, E., Diener, E., & Robinson, M. D. (2004). Why are materialists less satisfied? In T. Kasser & A.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29-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rivastava, A., Locke, E. A., & Bortol, K. M. (2001). Money and subjective well-being: It's not the money, it's the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959-971.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 1321-1343.

Suh, E. M., & Koo, J. (2008). Comparing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and nations: The "what" and "why" questions.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 414-427). NY: Guilford Press.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Visser, B. A., & Pozzebon, J. A. (2013). Who are you and what do you want? Life aspirations, personality,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 266-271.

White, J. B., Janger, E. J., Yariv, L., & Welch IV, J. C. (2006). Frequent social comparisons and destructive emotions and behavior: The dark side of social comparison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 36-44.

1 차원고접수 : 2015. 08. 22.
수정원고접수 : 2015. 11. 07.
최종게재결정 : 2015. 11. 13.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5, Vol. 29, No. 4, 63-83

Why Korean university students are less happy than U.S. counterparts? The role of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arison

Jaisun Koo
Chung-Ang University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extrinsic value, that is the relative importance to extrinsic values (such as money, physical appearance, and other's approval) compared with intrinsic value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more focused on extrinsic values and less concerned with intrinsic values than U.S. counterparts (Study1). Secondly, relative extrinsic values explained both national (Study1) and individual (Study2) differences of subjective well-being. Finally, path models demonstrated that relative extrinsic values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arison (Study1 and Study2).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values one pursuits have an important role in subjective well-being and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arison.

Keywords :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intrinsic value, extrinsic value, social support, social comparison, culture

www.kci.go.kr